

NEWS LETTER

2021년 10월 04일 Vol. 419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 송광사 입재식 참여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0월 1일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에 참석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동국대학교의료원 채석래 의료원장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서정일 병원장, 의료원 기획처 김광기 기획처장, 김민호 경영관리 실장, 일산행정처 최기석 행정처장, 지도법사 능지 스님 등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분당한방병원 직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입재식은 송광사 괘불을 내거는 행사를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와 결사수행을 상징하는 죽비 전달, 고불문 낭독,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순례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봉사일정으로 경주병원 (10/2 사성암, 10/16, 표충사) 물리치료봉사와 대중공양금, 일산병원 연우회 (10/9 해인사) 양방과 한방 의료봉사 및 대중공양금보시, 분당한방병원 한약 공양을 지원한다.



개원 16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9월 27일 오후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상임이사 성월 큰스님을 비롯해 채석래 동국대의료원장, 권범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임성우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장 등 교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기근속직원 표창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동국의학인상, 동국 학술연구 대상, 연구공로상, 장기근속자 공로패 전달, 모범직원 표창장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권범선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성우 한방병원장은 “일산 지역에서 유일한 대학 한방병원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 업적을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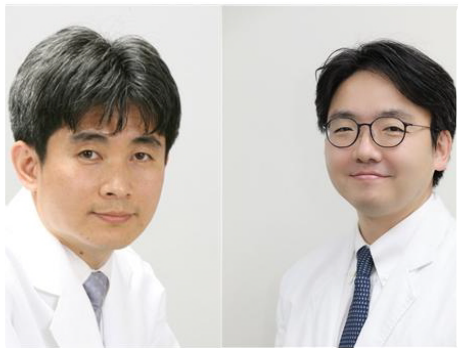


신경과 김동억 · 류위선 교수 연구팀, 연구성과 발표

뇌경색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해온 사람은 뇌경색이 생기더라도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 뇌경색의 크기가 작고 예후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결과 아스피린이 뇌경색의 크기를 30% 감소시키고 3개월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확률을 32% 높이는 것은 물론 입원 후 뇌경색이 악화될 위험을 16% 낮춘다는 사실도 밝혔다.

신경과 류위선 교수는 “아스피린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선 안 되고,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출혈 부작용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료를 바탕으로 투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경과 김동억 교수는 “저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아스피린 등의 항혈전제가 뇌경색 발병 유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발병했을 때 그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합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 표준센터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신경과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Annals of Neurology' (영향력 지수 10.4)에 발표됐다.



“의료진은 우리의 영웅, 힘내세요”, 손편지 전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따뜻한 감사의 편지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15일 한 초등학생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72병동 의료진을 위해 직접 쓴 그림 편지를 전달했다.

직접 전달한 편지에는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을 아주 많이 존경하고 있어요” 등 응원의 메시지에 의료진을 위로하는 어린이의 진심이 가득 담겨있다.

72병동 의료진은 “초등학생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지치고 힘든 의료진에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